

## GATES 문

작업의도 강이연 2020

‘GATES 문’은 조선일보 100주년 한글 특별전 ‘ㄱ의 순간’을 통해 선보인 몰입적인 프로젝션 맵핑 설치작업이다. 본인은 이 작업을 통해 한글의 조형 원리에서 시작하여, 현재, 미래의 한글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다. 한글은 점, 선, 면이라는 최소한의 조형 요소만으로 사각형 안에서 모두 완성할 수 있는데, 본인의 영상물도 이처럼 기본적 조형 요소를 사용한 기하학적 형상으로 시작된다. 한글 점자를 나타내는 마치 씨앗같은 점이 화면을 채우고, 점이 선으로, 면으로 확장되며 한글의 조형 원리를 표현한다. 이내 영상은 점점 유동적인 형상으로 변모하며, 문이 열리며 빛이 새어 나오고, 이윽고 거대한 빛의 파장으로 폭발한다.

생각을 담은 틀이 언어이듯, 본인의 작업을 담아내는 틀인 스크린은 이 작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영상물은 직각으로 만나는 두개의 면에 프로젝션 되는데, 이 스크린은 고정적인 벽면이나, 불투명한 막이 아니라 반투명한 재질이다. 이 스크린은 상을 멧히게 함과 동시에 투과시켜, 보는 관점을 비고정적으로 만든다. 스크린의 앞과 뒤, 안과 밖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감상자의 위치를 상징하는 것 또한 의미가 없다. 스크린은 보는 관점에 따라 ㄱ 이자 ㄴ이고, 여닫는 문이며, concave 이자 convex 이다. 나아가 이 탈이분법적인 스크린을 통해서 영상물은 바닥, 벽 면에 반사되면서 스크린 너머의 공간 전체로 확장되어, 전시 공간을 하나의 몰입적 환경으로 탈바꿈시킨다. 이렇게 영상과 스크린, 공간이 결합되어 현재 전세계로 확장되고 있는 한글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다.

한글이 읽히려고 존재하듯, 이번 작업은 읽히고 해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을 작업 안에 담아 놓았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 요소는 BTS와 ARMY이다. 작업을 위한 리서치 과정에서 본인은 BTS와 ARMY를 통해 유례없이 커지고 있는 한글의 영향력을 발견하였고, 이 모습에서 한글의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었다. World Economic Forum은 언어적 확률로만 본다면 사용자측면에서 매우 극소수 인구만이 사용하는 한글로 노래를 부르는 BTS의 현재 성공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 분석했다(2018). 고정관념의 틀을 깨트린 그들의 성공에는 bottom-up 구조의 팬덤문화가 크게 기여한다. 전 지구에 포진한 ARMY는 자발적으로 그들의 한국어 가사를 번역하고, 분석하고, 각종 영상물에 자막을 다는 등 한국어 가사에 거부감을 갖기는 커녕, 그 전파에 역동적으로 참여한다. 마치 Derrida가 이야기한 Rhizome처럼 촘촘하고 탄탄하게 짜여 팽창해가는 ARMY의 능동적 집단지성을 통해, BTS는 한국어 전파의 주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외국 콘서트장을 채운 수 만명의 외국 팬들은 어려운 한국말 가사를 무리없이 ‘떼창’하고, 이 폭발적인 인기로 힘입어 신조어인 ‘돌민정음’(Idol의 DOL에 훈민정음을 결합)이 생겨나고, ‘한영어(한국어 발음을 영문 알파벳으로 옮긴 것)’가 대유행이다. 새로운 문이 열린 것이다.

본인은 현재 한글이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이 15세기 한글 창제 당시 배포되는 과정과 닮아있음을 발견했다. 민족의 주체성을 찾기 위한 의도를 담고 만들어진 훈민정음은 일반 백성과 여성에게부터(언문, 양클) 널리 쓰이기 시작해 bottom-up으로 결국 한글에 대한 반발감이 심했던 유학자, 사대부까지 전파되었고, 이는 이후 우리 고유의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거름이 되었다. 결국 표현하고, 나누고, 소통하기 위한 열망이 한글을 탄생시켰고, 현재 전 세계까지 이를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연결 고리를 녹이기 위해 BTS와 ARMY의 로고, ARMY BOMB, 외국 팬들이 한국말 가사를 따라 부르는 떼창 등이 작업 안에 담겨 있다.

‘GATES 문’은 스크린을 매개로, 영상이 반사되고 투영되는 현상에 사운드까지 결합시켜 하나의 시공간을 구축하여, 그것을 경험하고 그 안의 다양한 상징과 기호를 읽고, 해석하도록 관객들을 몰입적인 환경 안으로 초대한다. 언어가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에 의해 비로소 쓰여지고 소통되면서 생명력을 갖게 되듯이, 이 작업 또한 관객이 적극적으로 자신과 작업과 공간 간 사이를 탐구하고 관계를 맺어야만 비로소 완성된다. 언어는 결국 사람과, 생각을 연결하는 문이다. 이 작업을 통해 한글을 창조적인 ‘문-Gates’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